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2월 4일(금)
--(윤력 10월 20일)--
Пятница
4 декабря 2020г.
№ 47 (11691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3일은 러시아에서 무명 병사의 날로 기념한다. 지난 3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영예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성화에 생화를 헌화하고 목념으로 대조국전쟁 때 전사한 무명의 병사들을 추념했다. 행사에는 주, 시 정부 관계자, 민간단체 활동가와 학생들이 참여해 무명의 병사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주지사, 슈왈로브와 만남

러시아 연방 국가협력개발사 대표 이고리 슈왈로브가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브와 만나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 도시 종합개발에 따른 협력을 논의했다. 만남에서는 일부 사할린 국립대 건물 신축과 새로운 주거지 환경과 관광 시설 조성에 대한 기획들을 비롯해 코르사코브의 항구 제반시설 개발도 언급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의 전략은 기존의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시 구역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과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로서 도시계획의 최첨단 개념과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주력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에서는 지역 설계와 기획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가들을 유치하여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기획의 우선적 과제 중 하나는 도시계획과 도심 지역 개선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법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주요 계획에서 주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려

동포사회 발전을 논의한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과 대회 공식홈페이지(hanin2020.co.kr)를 통해 12월 1일부터 일까지 개최되었다.

국내외 54개국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지역별(10개 지역) 현안토론,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동포사회의 현안과, 모범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의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함께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다.

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 촉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발휘된 모국과의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등 총 6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에는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교민소통 플랫폼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발표한 '인도 한인회'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공동의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 속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2020년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3일 오후 폐회식에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다. 언택트 시대에 전 세계 한인회장님들과 더욱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티몹스코에 구역, 가스보일러시설 5 곳에 가동

올해 말까지 티몹스코에 구역에서 5개 보일러 시설이 가동된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가스화 프로그램 성취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새해 전까지는 티몹스코에와 크라스나야 티미 마을, 키롭스코에 마을 3 곳의 새로운 주택공사업 시설들을 가동시켜야 한다. 이로써 지역 생태환경을 개선시키고, 난방이 더욱 편리해지며, 개인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편리해진다.

앞으로 키롭스코에, 야스노예, 조날노예 마을 3곳의 가스보일러 시설도 가동될 전망이다.

새로운 가스보일러 시설 가동은 '가스프롬'회사가 티몹스코에 마을에 가스 공급소를 건설한 덕에 가능해졌다.

사할린주의 전체 가스화는 '가스프롬'회사가 2025년까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총12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고 2만6천 주택단지와 157개 기업과 보일러 시설들을 가스화할 전망이다.

단신

사할린주 연어잡이, 작년보다 적은 1만 톤

11월 30일 사할린주에서 공식 연어잡이 기간이 끝났다. 2020년 어획기간 동안, 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총 6만7천 톤이고 이 중 송어가 3만3천858.064톤, 연어는 3만1천804.274, 네르카는 811.233톤, 은연어는 440.711톤, 시마는 1.330톤이었다.

올해 사할린주 태평양연어류 어획 총권장량은 8만9천876.190톤으로 지난해 사할린 지역 태평양 연어 총 어획량은 7만6천410톤에 달했다.

김이고리 선수, 러시아 청각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수상

러시아 청각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크라스노다르 변경 아르한겔스카야 마을에서 열렸다. 전국 여러 곳에서 온 선수들이 다양한 체급별로 대회에서 경쟁했다. 이 대회에 사할린주를 대표해 사할린 그레코로만레슬링 스포츠학교의 김 이고리 학생(사범 김 제니스)이 출전했다. 58킬로그램 중급(14명 출전)에서 승부를 다툰 김 이고리 선수가 최종 결승전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코로나19 감염 증가

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사할린지국은 11월 29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의 감염율이 사할린의 17개 지방자치체 중 훨씬 높은 46.2%를 기록했다. 감염률 증가는 9월부터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11월 23일~29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912명으로 기록돼 인구 10,000명 당 감염률은 186.26명으로, 지난주 대비 5.7% 증가했다.

감염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수 96.05%, 손 소독제 미사용 94.03%, 공공장소 마스크 미사용(가게 및 대중교통)이 83.8%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30~49세 성인의 경우가 30.7%로 비율이 높고 코로나19의 무증상 환자는 지난 주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중증도로 볼 때 경증 환자가 766명으로 대부분이며, 중증 환자는 10명이다.

지난 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13개 학교를 포함해 주내 30개 학교에서 감염 일부 사례가 나타났고 이 중 학생 28명, 학교 근로자(교사, 직원등)은 17명으로 61%에 달했다. 학생들의 감염률은 10만 명당 74.06명이었다.

주내 9개 유치원 기관에서는 확진자가 9명인데 이 중 직원이 5명으로 55.5%를 차지했다. 미취학아동의 감염률은 10만 명당 20.7명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감염율은 10만 명당 57.9명으로 지난주보다 20%나 증가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한국에서 K-뷰티 유통 사업으로 성공한 사할린동포

김 안드레이(43세)는 필자의 오래 전 지인이다. 언젠가는 이분과 꼭 한 번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안드레이가 10년 전에 가족(아내, 딸 둘)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으로 떠난 젊은 가족이 어떻게 적응했을까? 한국을 영구 거주지로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궁금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김 안드레이가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에 욕심이 더 났다. 사실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판데믹으로 결국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여러 번 거절당한 중에 드디어 그를 설득하게 되었다.

"10년 전에 한국으로 갈까, 모스크바로 갈까 하는 선택에 서있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결국은 이미 영주귀국하신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좀 서둘렀어요. 큰 딸은 그 당시 5세, 둘째는 3살이었는데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말을 익혀야 하니까요."라고 안드레이가 그 당시를 회상했다.

"좋고, 옳은 판단이었다. 첫째를 바로 한국 유치원에 보냈더니 1년 반 후 유치원 졸업발표회에서 이 아이가 외국에서 온 아이란 것이 하나도 티 나지 않았다."고 안드레이가 말하였다. 작년 11월에 우연히 잠깐 그의 만파를 볼 수 있었던 필자는 깜짝 놀랐다. 만파는 완전한 한국 학생이었다. 외모, 옷 스타일, 말투 모두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소녀는 요리사를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사립대(은행업 전공)를 졸업한 김 안드레이는 평범한 직장일을 하면서 작은 개인사업을 해왔다. 개인사업으로 그는 컴퓨터, 프린터 등 관리를 하고 컴퓨터 부속품 판매도 하였다.

한국으로 이민갈 때 첫 1년 반은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하고 어학당에 다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축한 돈으로 살았다고 한다. 사할린에서 파트너와 함께 한 비즈니스로 조금씩 들어오는 돈도 생활비로 쓰다 보니 빨리 없어지기 시작했다.

안드레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안정적이고, 좋은 미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한번은 모스크바에서 온 친척을 데리고 서울을 안내했다. 동대문의 한 화장품 가게를 들어갔더니 친척이 한 제품을 가리키면서 '어머나, 이건 좋은 제품이다. 난 일본에서 이런 것 사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훨씬 저렴하구나.'라고 해서 안드레이는 이 아이템이 좋은 제품이라 보고 '러시아 사할린에 화장품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사할린에서 사업할 믿음직한 친구-파트너들을 찾고 2012년부터 한국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첫 2년은 서울 동대문에서, 다음 2년은 인천에서, 다음은 안산에서 사무실을 차렸는데, 작년에는 다시 인천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회사가 대출을 통해 곧 준공될 건물(사무실과 물류창고)로 다시 이전하게 된다.

사실 안드레이는 언론에 얼굴을 비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수도 조금 아끼는 편이고 그의 사업에 대한 정보는 필자가 김 안드레이가 운영하고 있는 엠케이무역(MK Trading)의 사이트에서 찾아냈다.



안드레이는 2012년에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 법인 주식회사 엠케이무역을 설립했다. 현재 회사에서 15명이 근무하는데 한국인 3명, 나머지는 동포다. 사업하는 동안 많은 한국 브랜드사와 러시아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글로벌 파트너인 <큐티>를 통해 러시아 연방, 독립국가 시장에 한국 화장품을 유통한다. 사할린에서 시작한 <큐티>는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 멀티 브랜드의 화장품 매점 100개가 있으며 러시아에서 최고로 한국화장품 시장을 누리고 있다. 현재 엠케이무역에서 약 60개 한국브랜드사의 화장품 등을 <큐티>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동안 엠케이무역은 한국 무역협회에 가입했고 대한화장품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역협회가 무역의 날 행사에 수출의 탑 수상 업체로 선정하면서 회사로서는 공적이 되었다. 2018년에는 엠케이무역은 <500만 달러 수출의 탑>, 2019년 12월에는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으로 수상했다.

회사가 오랜 기간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의 제품을 러시아, CIS 시장에 유통시키며 습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8년에 현지 시장의 파트너와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ayoume(아유미)' 브랜드를 런칭하였다. 엠케이무역 정보를 찾다 보니 '주식회사 엠케이무역(대표 KIM ANDREY)의 코스메틱 브랜드인 '아유미

(ayoume)'가 2020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의 '화장품/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11월 30일) 밝혔다. 단 한 신문 기사에 내용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할린 동포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안드레이는 말하길 자기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의 선정은 전직원들에게는 물론, 엠케이무역과 함께하는 여러 파트너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김 대표가 말했다.

사실 10년 전에 김 안드레이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영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때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2007년 영주귀국한 부모님은 인천 논현동 아파트에 입주하고 막내 아들(셋째)의 미래를 많이 걱정했었다고 한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아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그 령고,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앞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었다. 아들이 적응을 잘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 안심된 듯하다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안드레이는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신의 독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도 거부했다. 대신 필자가 인터넷에서 찾은 수출의 탑 시상식 단체사진을 올리기로 했다.

사업으로 매달 러시아 지역을 찾는 안드레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1년간 해외에 가지 못하고 대신 거의 주말마다 식구와 또는 아내와 둘만이 지역 여행을 즐긴다고 한다. 등산을 하거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한국의 문화 역사를 더 접한다.

착하고, 책임감이 있고 늘 노력을 하는 김 안드레이가 사할린 한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네벨스크시, 겐나지 네벨스코이 탄생 207주년 기념

12월5일 네벨스크시에서 겐나지 네벨스코이 탄생 207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지역 문화회관 홈페이지에는 이날 12시에 유명 겐나지 네벨스코이 공원에서 추모식이 개최되고 13시부터는 레닌광장에서 라디오 콘서트에 열린다고 알렸다.

11시에는 '아틀렛' 청소년 스포츠 클럽에서 지역 체스 선수권대회가 시작되고 향토역사 박물관에서는 기념일을 맞아 다류 사진전과 세르게이 노비코프 화가의 <겐나지 네벨스코이의 별과 삶> 미술 전시회, 예카테리나 네벨스카야에 관한 '사랑을 지닌 마음 속에' 디지털 관람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207-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Геннадия Невельского отметят в Невельск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207-й годовщин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Геннадия Невельского, пройдут 5 декабря в Невельске.

На сайте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в сквере имени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адмирала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его памяти. Начало — в 12 часов. С 13 часов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адиоконцерт. В 11 часов в подростковом молодежно-спортивном клубе "Атлет" начнется первенство района по шашкам.

Такж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стенах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честь памятной даты действуют фот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выставка художника Сергея Новоселова "Звезда и жизнь Геннадия Невельского", интерактивная экскурсия "С Амуром в сердце" (посвящена Екатерине Невельской).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연주회를 열어

'악보를 넘기며' 사할린 청소년 합동 심포니오케스트라 콘

서트가 11월6일 체호브 센터에서 열렸다. 청소년 합동 오케스트라는 사할린 문화의 보배다. 음악학교의 우수 학생들이 창작 부문에 모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주내 전 지역에서 9세-17세의 청소년 음악인 50명이 빅토리아 유흐마노와(네벨스크 아동 음악학교 교사)와 알렉세이 안(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아동 음악학교 교사)의 지휘 아래 위대한 음악가들의 작품 중 유명 곡들을 생생하게 연주해 강하고도 정갈한 감성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1시간 30분간 관객들은 3세기에 걸친 대규모 음악 여행을 하여 비발디, 모차르트, 안토닌 드보르작, 조르주 비제의 작품을 비롯한 유명 영화 속의 많이 사랑 받는 로망스, 전쟁곡, 현대 음악에 빠졌다.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дал 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вод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Листая музыкальные страницы..." состоялся 26 ноября в Чехов-центре.

Детский сводный оркестр — это золотой фонд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Лучшие ученики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собираются на творческие сессии, готовят программу и радуют зрителей.

В этот раз около 50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с 9 до 17 лет почти со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кроме Курил)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ирижеров Виктории Юхманов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Невельско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и Алексея Ана(ЦДМШ,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дарили настоящие сильные, чистые эмоции через живое исполнение знакомых, узнаваем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ели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За полтора часа слушатели, совершив масштаб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трем векам, услыш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А. Вивальди, В. Моцарта, А. Дворжака, Ж. Бизе, а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ая музыку, военные песни и романсы из многим любившихся, известных фильмов.

사할린, 쿠릴 지역 자연적 인구 감소 현상

1월~9월 사할린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 주민신분등록소에는 출생아 4천104명, 사망자 4천604명이 기록되었다. 자연적 감소는 500명으로 2019년 유사 시기에는 302명이었다. 주내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의 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시지역이다.

주내 혼인은 2천408 건, 이혼은 1천665건에 비해 2019년 유사 시기에는 혼인 2천569 건, 이혼 2천90건이 기록되었다.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부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0년 1월~9월 사할린과 쿠릴에 1만4천458명이 왔었고 이 중 55.1%는 영주 거주를 위해서다. 1만5천83명이 타지역으로 이주했고 이 중 79.8%가 이전 거주지 등록에서 삭제되었다. 사할린 지역 내에서 주거지 변경자는 5천344명이며 사할린으로의 이주민 감소 수는 625명이라고 사할린주 통계국 홍보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фиксирован рост естественной убыли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 — сентябр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4104 родившихся и 4604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500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02 человека.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т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408 браков и 1665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2569 браков и 2090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 — сентябрь 2020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14 45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5,1%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8면에 계속)

주제: 사할린 한인 문제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에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과 특별법제정에 따른 정책안을 제출해 이를 본 지상에 게재합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1. 정의와 관련하여

■ "사할린동포"의 정의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

- 이 지침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이하 "사할린동포"라 한다)라 함은 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 혈통의 무국적자, 러시아·CIS국적 소지자 및 북한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사할린동포법의 정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한인을 동포에서 제외. 기존의 지침보다도 동포의 정의를 협소화하여 동포들의 불만과 오해를 야기.

→ 법 개정을 통해 동포에 대한 정의와 영주귀국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야 함

■ "동반가족"의 정의

○ 사할린 동포법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영주귀국을 하고 싶어도 혼자여서, 혹은 자식과 떨어지기 싫어한 상당수의 사망동포 배우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외교부 차관의 답변이 있는 바, 발언대로 확정해야 함.

제376회 외교통일소위 제1차(2020.3.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1호, 8쪽.

○ 소위원장 정양석

차관님, 처리하기 전에 이거 또 하나 좀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자주 질의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복지부에서는 예산과 소위 예산 지원 차원에서 1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돌보는 데 한 사람이면 좋다, 한 사람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

기 때문에 1인으로 규정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1세대가 돌아가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2세대는 그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경우에 그 2세는 영주귀국 할 수 없습니까, 차관님?

○ 외교부제2차관 이태호 저희들은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 소위원장 정양석

아니, 그래서 이 법에 그런 규정이 없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안 된다 그러냐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법을 이렇게 지금 논의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도대체 외교부가 복지부 눈치보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이태호

위원장님, 5조 2항이 그 부분인데요. 5조 2항에 원래 그러니까 사할린동포 1세대의 생존 여부를 조건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부 담당도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되고.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시행령 추가

현재 시행령에는 영주귀국과 관련한 사항만 있어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6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안정화하고, 가족의 이산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을 실시한다.

7조 피해구제 및 사할린 동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 실시한다. 또한 자료확 보를 위하여 일본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노력을 한다.

8조 사할린 현지에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한다.

9조 사할린 동포와 그 후손들의 국적회복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책제안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영주귀국 우선 순위 및 지역 선정

- 영주귀국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동포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

- 한국에 부모가 있는 자녀의 영주귀국인 경우 부모거주 단지로 거주지를 마련한다.

○ 정착지원 및 가족의 이산에 따른 지원

- 정착 지원 캠프

- 특별생계비 현실화

- 영주귀국 부모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2인 왕복항공권 제공

○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 시행

- 예) "사할린 동포의 날"제정, 전국 사할린 동포모임 개최 : 친지, 친구 간 만남을 통해 이산에 대한 위로,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 공유 등 정착에도 도움.

※ 3.8 여성절이 큰기념일인 문화를 존중하여 이날을 겸하여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

- 각 지역별 사할린동포 활동 활성화

예) 한국인 학생, 일반시민 대상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강연,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 문화 이해, 사할린의 한식과 러시아 요리 배우기, 학교 강연 등

→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한국사

화와 교류 통합하는 계기 마련

※ 교과과정에서 동포 이주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체험

■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 빼앗긴 귀환 권리와 국적 선택의 자유의 피해구제로서 국적부여

- 영주귀국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초 귀환했어야할 동포들의 미귀환에 따른 구제로서 국적부여를 적극 검토해야함.

- 2세~3세 국적회복 절차 간소화 : 법무부는 사할린 동포가 국적판정 대상이며, 23세의 경우 귀화나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동원자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특히 한국에 와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일은 사할린 동포에게는 어려운 일. 이에 국적회복 절차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할린동포는 70년대까지 귀환을 목적으로 국적취득을 미루고 있었고, 2014년 국적 확인소송을 통해 무국적 사할린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은 만큼,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복수국적의 허용은 영주귀국에 대한 요구보다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도 긍정적.

(7면에 계속)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잠들어 있는 길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도시는 시 규모에 비해 큰 기차역이 있었다. 역 앞에는 시내 중심가가 펼쳐지지만 철도 노선 세 개가 교차하는 역 뒤편, 수십 갈래 철길 너머는 초라한 동네였다. 그 동네에서 시내를 오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한참을 멀리 가서 건널목을 건너거나 역 광장 구석에 있는 몇 백미터 길이의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다는 지하도는 갱도처럼 좁고 어두웠다. 희미한 전등불이 군데군데 켜져 있고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떨어졌다. 기차가 지나가면 머리위에서 천둥소리가 났다. 장마철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습기 때문에 늘 퀴퀴한 냄새가 났는데 덕분에 여름에는 꽤 서늘했다.

지하도가 있어서 건너편 동네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지 않고 시내로 바로 나갈 수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지하도를 건너려면 꽤 용기를 내야 했다. 끝없는 동굴 같아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혼자 들어갈 수 있었다.

삼십 년 전 쯤, 넓은 차도와 깨끗한 인도가 함께 나있는 새 지하도가 뚫리면서 옛 지하도는 잊혀졌다. 이제는 옛 지하도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다. 원래부터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쓸 일이 없는 지하도였기 때문이다.

얼마 전, 고향에 갔다가 시간을 내서 역 근처를 걸었다.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 옛 중심가는 쇠락했고 새로 조성된 신도심에 상권도, 기관도, 아파트도 집중되어 있었다. 역 앞에는 작고 낮고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차를 타려고 역 광장을 건다가 문득 옛 지하도 생각이 났다. 육조의 물구멍처럼 열려 있던 지하도. 그 지하도를 분주히 오가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땅속에 그 길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다시 바깥 공기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요즘은 어떤 물건이든 이십 년만 지나면 골동품, 삼십 년이 지나면 거의 문화재 대접을 받는다. 새것에만 열광하는 시대에 땅속에 잠들어 있을 지하도를 생각하면 애잔하면서도 흐뭇하다. 어둡고 서늘한 지하도에는 그 시간, 그 느낌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을 것 같다.

광주에서 김남중

홈스크, 씨름대회 개최



지난 11월 28일(토) 홈스크시 <오토와가>체육관에서 홈스크 구역 씨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와 홈스크 한인회(회장 박용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대회에는 홈스크시, 체호브 마을과 코스트롭스코예 마을의 선수 50명이 참가해 멋진 승부를 겨루었다.

이번 씨름대회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에서 민족 씨름을 보급 및 발전시키는 것이며 씨름선수들의 기술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홈스크 구역 씨름 대표팀을 단합시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대회는 목적을 달성했고 선수들에게 이날 씨름협회와 홈스크한인회에서 준비한 메달과 상장, 상품으로 시상했다.

본격적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날 선수들을 사할린 주두마 크루글리크 아르쎘프 의원, 홈스크한인회 박용순 회장, 사할린주 한인협회를 대표해 이진선 씨가 환영인사를 하고 덕담을 전했다.

한편 2018년에 창설된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사할린에서 씨름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씨름대회도 열고, 올해 봄부터는 여러 지방에서 무료 씨름 강습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또한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인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와 많은 교류하고 있으며 사할린 선수들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도 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주한인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진선, 배순신)

(사진: 홈스크한인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мериканские iPhone 12 по сути на тре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зготовленные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тали составляют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компонентов нового iPhone 12 компании Apple. Они включают светодиодные дисплеи и чипы памяти.

Газета Nikkei daily сообщила, что японская техн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разобрала iPhone 12 и обнаружила,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етали доминируют с 27,2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9 процентами в iPhone 11. Американские детали составляют 25,6 процента и японские 13,2 процента.

Газета пишет, что дисплеи стали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вышенной дол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еталей. Все iPhone 12 оборудов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ветодиодными экранами.

Как ожидается, Apple выпустит 80 миллионов iPhone 12, и 60-62 миллиона из них будут оснащены экранами от Samsung Display, а остальные от LG Display.

Светодиодные дисплеи были впервые разработаны японскими фирмами Sony и Pioneer, но они проиграли лидер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нкурентам.

Светодиодный экран для iPhone 12 стоит около US\$70, составляя 19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гаджета в \$373.

Samsung и SK Hynix также поставляют дорогостоящие чипы памяти, а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обеспечивают Apple другими, более дешевыми деталями.

Смартфоны 5G становятся хитом продаж

Продажи смартфонов с поддержкой сетей 5G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превысят 10 миллионов единиц в этом году и удвоят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5,1 миллиона смартфонов, проданны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бщили в компании п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рынка Counterpoint Research.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вая в мире запустила коммерческие сети 5G в апреле 2019 года. На конец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числ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услугами 5G составила 9,25 миллион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 первы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продажи смартфонов 5G достигли 5 миллионов единиц, но продажи должны резко возрасти в связи с выпуском компанией Apple первых смартфонов, сочетающихся с 5G, а также iPhone 12.

Смартфоны с функциями 5G составляли 49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продаж смартфон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а 2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компании Counterpoint Research полагают, что продажи смартфонов достигнут 16 миллионов единиц в будущем году, на 56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ИА РУСКОР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2019 году - 83,3 года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ладенцев, родивших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т в среднем 83,3 года. Это на 6 месяце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ообщило во втор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В 1970 год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62,3 года, а в 2009 году – 80,1 год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мальчики, родившие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удут жить 80,3 года, а девочки - 86,3 года. Гендерный разрыв в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останется неизменным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составляя 6 лет.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младенцев мужского пола в РК на 2,2 года, а женского – на 2,9 года бол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KBS World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Москве, посвящённая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Под эгидо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ООК) 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В РАН) 26 ноября 2020 г. проведе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посвящённая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Тема конференции: «Роль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углубл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спект и современ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ал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ИВ РАН),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оорганизаторы: РО ООК г. Москвы;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осков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граждан Кореи «Ханин Хе»; АНТОК,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ентябре 2020 года исполнилось 30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Это период количественного 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плодотворного и добрососед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алаживани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торговле, образовании, сфере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обе стороны в целях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я своих народов.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где бы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важные события 30-летней истор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а также о рол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Конференция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ий директора ИВ РАН Алишера Алишера Калабековича, президента ООК Цо Василия Иванович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ак Хо.

В адрес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поступили приветствия от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Минис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руководителя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С.Е. Черёмина, ректора МГИМО, председате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ркун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В РАН Головачев Валентин Цунлиевич также выступил в начале заседания.

Основные доклады сделали крупные учёные, Воронцов А.В., Ким Ен Ун (Евгений Евгеньевич), Дьячков И.В., Хван Ен Са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угай Н.Ф., Пак Б.Б., Ким Г.Н.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экспер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Известные учё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искулова Ю.Е., Цой И.В., Ким Моисей, Пак Хен Те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Эм Н.Н., Бейк Ку Сен, Дин Юлия, Чен В.С., Чо Д.И., Ким А.Э., Пай П.П., Сон Ж.Г. К Э., Лим Сан Хю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другие поделились с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новыми изысканиями, впервые ознакомили со многим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ми сведениями, малоизвестными фактами истории у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езультатами взаимных свершений и достижений, проблемами 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развития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связей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вовал зампред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С. Кучинский.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ых книг, изданных в 2019-2020 гг. в сер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здесь же на книжно-иллюстративной выставке. Все книги были подарены в дар Институту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и закрытие конференции.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 участники выразили сердеч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Конференции, руководству ИВ РАН, ООК,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собенно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ООК Киму В.Н., председателю Совета ООК Киму Моисею, председателю РО ООК в г. Москве Киму А.Э., Председателю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ай П.П., президенту АНТОК Чо Д.И. и другим.

Подписание 30 сентября 1990г. Соглашен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бывшим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вступление в ноябре 1992 г. Договора об основа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едопределили поступа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знание нашей стра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сло прогрессивный момент в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делал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безопасной для России, а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нашим важ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обходимы друг другу: Россия – политический гарант положени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и потенциально важнейший рынок для Кореи.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естала быть для россиян «terra incognita». Многие теперь бывают там с научны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гуманитарными целями, в обход прочно вошедшей в жизн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лектроники и электротехники, автомобилей, одежды, косметики и других товаров. Небывалых размеров достигли совмест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ак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существляют большое число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ауч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культур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ым, культур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студенческим и другим обменам. В таком ключе вот уже 30 лет продвигается плодотворное взаим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ются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в том числе по преодолению этой чудовищной болезни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стремятся выполнять роль надежного мост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ами.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летопись сложного пути по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у. Это правдивая история не только «печального исхода» через тяжёлые испытания и лишения, но и дост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чуд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просторах.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РК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бюджете 2021 года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РК договорились увеличить бюджет 2021 года на 2 трлн 200 млрд вон. В результате он составит 558 трлн вон (50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ретий этап чрезвычай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COVID-19 и расходы на вакцинацию.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 основ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о том, что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кратить бюджетные расходы, предлож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а 5 трлн 300 млрд вон (4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и добавить новые расход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7,5 трлн вон (6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2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ятий и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андемии, а 800 млн долларов -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окрыть бюджетный дефицит за счёт выпуска облигац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сле достигнут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бюджету он будет утверждён 2 декабря,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законом срок.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обсудило подготовку к съезду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овёл в воскресенье 21-е заседание Политбюро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посвящённое подготовке к VIII съезду партии. Его провед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январь 2021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 заслушан доклад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съезда, в том числе,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сех уровней.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также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партийно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работы». Кроме того, Политбюро «обсудило меры по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выполнения ближай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 на этот год и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ло ключевые решения». На заседании подчёркива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ави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управление реализац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партии на научную основу, проявить больше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подвергли «жёсткой критике орган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за не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субъективизм и формализм в своей работ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ысокопатогенный птичий грипп подтверждён в провинциях Кёнгидо и Чолла-Пукто

Ветеринарные органы провинций Кёнгидо и Чолла-Пукто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после сообщений 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ях птичьего гриппа среди перелётных птиц.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нализы образцов фекалий диких птиц, пойманных в этих районах, д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 высокопатогенный штамм птичьего гриппа H5N8.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птичий грипп обнаружен у домашних уток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Началас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им»

1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столичной мэрией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им»,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ится по 31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ранэ ёльме», проходит в 17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страны.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собрать 350 млрд вон (316 млн долларов). Для Сеула сумма составила 35 млн долларов. Вс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мощь одиноким, изолированным от общества людям, укрепление мер борьбы с бедностью, реш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На площади установлен огромный градусник, который отображает собранную сумму. Как только удаётся собрать 1% от намеченной суммы «температура» повышается на 1 градус.

Звёзды К-Рор получают отсрочку от призыва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во вторник поправку в Закон об обязательн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дающ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ыдающимся деятелям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мужского пола получить отсрочку от призыва. Такое право получают те, кто внёс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репутации страны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Данная поправка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в сентябре, когда бойз-группа BTS возглавила американской чарт синглов Billboard Hot 100 с песней Dynamite. Ранее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или отсрочка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только спортсменам, удостоенным наград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 классическим музыкантам-лауреата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Согласно поправке,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выдающиеся звёзды эстрады по ходатайству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тсрочку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и 30-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RKI)

«Быть девочкой уже считалось недостатком». История корейнки, которая пошла против традиций

Автор книги «Иди туда, где трудно. 7 шагов для обрет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Таэ Юн Ким пережила тяжелое детство. Ее родители хотели мальчика, считали ее проклятой, а в войну и вовсе оставили дочь. Однако она смогла не только выжить, но и стать сильнее, о чем и рассказала в своей автобиографии.

Корейнка Таэ Юн Ким родилась в деревне, в середине XX века. Родители ждали мальчика и считали, что она своим появлением принесла в дом неудачу. Ее били за то, что она не была похожа на сверстниц, не хотела замуж и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Через много лет, уже переехав в Америку, Ким смогла открыть свою школу единоборств. Она считает, что каждый может достичь своей цели и воплотить мечты в реальность. Об этом она написала книгу «Иди туда, где трудно. 7 шагов для обрет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перевод которой вышел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Бомбора» в конце июня. Forbes Woman публикует фрагмент о детстве героини.

Для начала ну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ово было жить в м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е в 1946 году. Я родилась в маленькой дерев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там жило около трехсот человек. Нас окружали горы и рек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 телефонов не было. Южная Корея в то время была маленькой страной, погрязшей в строгих традициях, не менявшихся пять тысяч лет.

По одной из множества традиций первым в семье должен родиться мальчик. Так семьи измеряли свой успех. Если первой рождалась девочка, это была катастрофа. Если на свет появлялся мальчик, на входную дверь вывешивали веревку, унизанную острыми перцами чили. Если девочка, на дверь вешали угольки. Как видишь, мальчиков принимали в мир совсем не так, как девочек. Быть девочкой уже считалось недостатком. Некоторые люди даже топили девочек-первенцев,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озора.

Я не только была первенцем и первой внучкой в семье. Я родилась в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когда принято почитать предков и просить, чтобы они благословили землю и ниспослали семье богатство и множество внуков. Мой дед был главой нашей деревни, а бабушка — иде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ой, которая родила восемь сыновей и двух дочерей. Каждый Новый год жители деревн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приходились нам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обирались во дворе деда, чтобы почтить предков. Поэтому все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ждали рождения внука. Мальчика. Мой дед пребывал в уверенности, что в этот благоприятный день на семью Ким снизойдет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 виде здорового маленького мальчика, который понесет дальше нашу фамилию.

Дед ни капли в этом не сомневался.

— У моего внука будет самый большой острый перчик, — хвалился он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деревни, дожидаясь моего рождения снаружи дома. — Он будет править страной.

Когда дед услышал мой первый крик, он крикнул бабушке:

— Женщина! Скажи, большой ли у моего внука острый перчик?

Моя бабушка посмотрела на крохотный бутон перед ней и в смятении поняла: перед ней совсем не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с острым перчиком. Она подумала: «Боже, на нашу семью пало проклятие. Мы обречены». Так мен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моя бабушка, и я еще не раз услышу эти слова, пока буду старша.

Она побоялась сообщить деду дурную весть. А

КНДР усиливае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силивае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района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границе с Китаем и военной демаркационной ли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9 ноябр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роме того, принимаются строгие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ередачи вируса через морской мусор. Для прибрежных районов разработаны более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по выходу в море для добычи морских биоресурсов и соли. Специ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разработаны для районов вдоль пограничных рек Туманган, Амноккан, Есонган и Имчжинган. Карантинные органы предпринимают «решительные шаги»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и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однократно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в стране н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KBS World

когда наконец-то призналась, он пришел в ужас. Он побежал к семейному алтарю в доме и стал молиться, спрашивая, почему на его семью пало проклятие в виде девочки-первенца. Он все твердил: «Что я сделал не так, за что мне такое несчастье?» Но разве не все так реагируют?

МЫ ЗАЦИКЛИВАЕМСЯ НА ВАРИАНТЕ СОБЫТИЙ, КОТОРЫЙ КАЖЕТСЯ НАМ ПРАВИЛЬНЫМ.

А когда все идет не так и наши большие ожидания рушатся, мы злимся, и почва уходит у нас из-под ног.

Вся деревня была в шоке. Чтоб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женщины по традиции готовили большой котел питательного супа из водорослей, которым кормят рожениц, а потом угощают всю деревню.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я родилась девочкой, все страшно расстроились и выпили этот суп.

— Не смей есть суп, — сказали моей матери. — Ты заразишь нас своей неудачей!

Услышав такие суеверные и унижительные комментарии и увидев, какой крохой я была, моя мать обезумела и не захотела иметь со мной никакого дела. Она бросила меня в угол и оставила одну, ожидая моей смерти. Много часов спустя она увидела, что я шевелюсь и издаю звуки, и все-таки решила меня покормить.

Итак, с самого моего рождения семья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жители род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еньки звали меня проклятием. Всякий раз, когда семья испытывала тяготы, в них винили меня. Я росла с клеймом позора. Моя мать, от которой все отвернулись после рождения дочери, валила вину на меня, как и мой отец. Он открыто негодовал из-за того, что я не родилась мальчиком, и в пьяном угаре избивал нас с матерью.

Никто в деревне со мной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Детей приучили не играть со мной, ведь все боялись, как бы на них тоже не свалилось несчастье. В детстве я не удивлялась, что люди все время на меня кричат. Дед, бабка и мать указывали мне: «Не ходи туда! Не делай этого!» Я думала, это нормально — когда на тебя всегда кричат.

ОТКУДА БЕРЕТСЯ УПОРСТВО

С началом войны в Корею дела мои и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пошли только хуже.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я помню хаос и тяготы войны — бомбежки, крики, бег. Я не могла понять, почему мир внезапно сошел с ума, почему повсюду гремят взрывы, почему люди пытаются причинить мне боль.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Forbes Woman)

Группа BTS возглавила чарт Billboard Hot 100 с песней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установила новый рекорд,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Billboard с песней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Её последний сингл под названием Life Goes On, выпущенный 20 ноября, дебютировал на первой строчке чарта Hot 100. Впервые за 62 года сингл, который исполня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озглавил чарт Billboard. Life Goes On - вторая песня BTS, дебютировавшая под номером один в чарте после англоязычного сингла Dynamite, который занял первую строчку в августе. Сейчас он находится на третьей строчке чарта. У BTS тепер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три песни, возглавляющие чарты, в том числе, ремикс на Savage Love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евца Джейсона Деруло и новозеландского продюсера Jawsh 685.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провизорного госпиталя на 100 пациентов

Он начал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десь заверш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закуп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едикаменты.

В провизорном госпитале будут лечить пациентов с пневмонией средней и тяжелой степени. Для этого приобрет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4 аппарата ИВЛ, теперь их 6 вместе с имевшимися ранее. Также оперативно закуплена наркозная, дыхательная аппаратура, кислородные концентраторы, пульсоксиметры, медикаменты.

—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мы обязаны уделить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ациентам с пневмонией. Для их лечения, безусловно, дол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отдельно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инфекционис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Солонина. —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больной будет немедленно направлен в инфекционный госпиталь.

Врачебный состав для работы в госпитале привлечен из друг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В основном это инфекционисты и терапевты. Средний и младший медперсонал остал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отделения городской гинекологии,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развернули госпиталь. В числе медработников — Елена Козлова — главная медсестра, которая работала здесь и до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месте с ней еще 7 коллег-медсестер из прежнего отделения.

— Мы не оставили свои должности 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сахалинцам.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решаем на месте. Условия здесь комфортные, все, что в наших силах, делаем. К приему пациентов готовы,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Козлова.

Палаты для пациентов рассчитаны на двух-, трех- и четырёхместное размещ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обретено постельное белье, комплекты посуды. Напомним, пациентки прежнего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спределены в областную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больницы. Врачи — специалисты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устроены на работу в открывшееся профи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На крупнейше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лнцевском угольном разрезе побили рекорд добычи угля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здесь добыто 1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угля, что на 0,9 миллиона тонн больше прошлогоднего показател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у рекорду посвятил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ство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проходила на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откуда виден весь Солнцевский угольный разрез. Руководство предприятия поблагодарило коллектив горняков за слаженную работу 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 Мы ежегодно наращиваем мощности Солнц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увеличива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расширяя парк горнотранспортной техники, внедряя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ейчас можем уверенно сказать, что 1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 это старт нового этапа работы для компании.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ем увеличить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 2 раз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ван Подгорных,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олнц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Важность события отметил и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Андрей Серов.

— Это рекордная цифра не только для предприятия, но и для все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 сказал он. — Результат был бы невозможен без грамот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воевремен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качественн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команды.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аш труд.

В знак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 передан большой фрагмент угольной породы, добытой в рекордной партии. Десятикратным гудком ознаменовали юбилейный объем добычи БелАЗы на Солнцевском угольном разрезе.

Отметим, ООО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ГК) — ведущ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марок угля с добычей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пан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ортеров бурого угля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ГК сегодня реализует на острове крупнейш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троится самый протяженный в России 23-километровый угольный конвейер. Он соединит Солнцевский разрез и морской порт Шахтерск, развит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которого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ы с планами по увеличению добычи угля и его экспорту. Запуск линии в работу позволит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угля с разреза в порт до 2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Регион первым в стране начнет реализацию новой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прос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л главным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РФ Ирека Файзулли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лжно быть ликвидировано 8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епригодного фонда, в котором проживает 3318 человек.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 предстои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еще свыше 63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на островах.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елить более 1700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мов. Новоселы должн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окол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вершить эту работу планируется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оступит по линии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в 2021-2026 годах требуется более 5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получить как пилотный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ает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домов, признанных аварийными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 Реальные объемы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оказалис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тех, что значились в документах. Люди не должны жить в нечелове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Мы еще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ктивно взялись за решение этого острого вопроса и намерены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роблему за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Для этого нам требуется федер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дох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бюджет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идет несколькими путями. Наращиваются темп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сдадут 4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на 100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2019-ом. Весомая часть этого объема —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Также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непригодного фонда приобретаются квартиры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и ремонтируют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онд. Кроме того, владельцы квартир в аварийных домах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купную стоимость своего жилья и направить эти средства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Напомним,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двухпроцент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и другие льготные ипотеч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завершении встречи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т которой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благополучие российских семей.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 что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для этого уже оговорены и показаны.

— Если все это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т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не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а как раз для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то есть порядка 30-40%, чего ранее не было. Надеюсь, чт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со второго полугоди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поскольку необходимо детально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ы по раз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 пояснил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На Сахалине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новом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Объ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го заверши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областных домах-интернатах.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учреждения смогут островитяне, проходящие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учреждения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добный комплекс появи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первые.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веде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располож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нем предусмотрят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игры в волейбол и баскетбол, два зала обще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на 11 и 13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ект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Ким.

Под игры с мячом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лощадка размером 26х14 метров. По её периметру расположат двухметровую зону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отработки отд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игры в волейбол нанес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разметку. Причем все элементы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для ориентации слабовидящих окрасят в специальные цвета. Линии разметки — в белый, зону безопасности — в голубой, а зону площадки — в коричневый или оранжевый.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й расстанов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на коляске во все зоны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Для развития мышц в помещениях комплекс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множество тренажеров. Среди них — велотренажеры, велоэргометр и беговые дорожки. Кроме того, посетители учреждения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нарядами для развития плечевого пояса, мышц спины, груди и пресса. Также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ковры для упражнений на полу, гимнастические скамьи и стенк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обустройству раздевалок.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островитян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истенные скамьи с поручнями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лежа.

Душевые кабины для людей, использующих кресла-коляски, оборудованы горизонтальными и вертикальными опорными поручнями.

Также в здании предусмотрят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ые санузлы и комнату инструкторов.

Школь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е «Безопасные дор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Безопасные дороги» на знание основ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стартовала накануне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Учи.ру.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имут школьники 1 — 4 классов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выступила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иоритеты» совместно с ГУОБДД МВД России, Минтрансом России и Росавтодором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 Работу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етског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травматизма необходимо усиливать,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кура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 Уверен, чт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е просвещение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вопрос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зволит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количеств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Мероприя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и классные часы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торой — сама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цепочку интерактивных обучающих и тестовых заданий в понятном и интересном для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ов формате. Над их разработкой труд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психиатрии и наркологии имени В.П. Сербск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Учи.ру и профильные сотрудники ГУОБДД МВД Росси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продлится до 11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о окончании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оссии с 2019 год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субъектах удалось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более 3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а также провести комплекс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ех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виж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около 27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построили еще около 25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 Сегодн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всех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Только треть из них имеют твердое покрытие. По итогам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а пять лет до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с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ормативу, должна вырасти до 55 процен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 программе двух дипломов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вдвое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О проектах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2021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2-2023 годов.

Елен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из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программа двух дипломов нашла большой отклик у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 Это действенный механизм,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отток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Будут ли продле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 спросила Елена.

Программу двух дипломов продолжа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оступая на бюджетную основу в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параллельно учиться в ведущих вузах страны.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2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Задач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привлечь еще больше абитуриентов.

— Мы хотим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остав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учали здесь самое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трудоустроившись на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Сейчас на эти места приглашают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А мы хотим, чтобы там работали наши ребята,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 нас ес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Газпромом», будем набирать совместные группы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Ребята начнут изучать нефтегазовое дело и новое перспекти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водородную энергетику. Туда поступят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Те, кто собирался уехать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ли за границу.

Как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с будущими выпускниками в классах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ведут собеседо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набрать две группы по 20-25 человек.

Также будут набирать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области логистики, архитектуры и други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правлений.

Во время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б обновлен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здания для главного корпуса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Эти проекты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частных средств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주목: 사할린 한인 문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책제안

(3면의 계속)

→ 냉전시기 귀환의 권리와 국적선택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 인권침해의 회복을 고려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2~3세에 대하여 복수국적의 취득을 특례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재외동포재단의 국외 입양동포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입양동포 2~3세가 국적취득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를 해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뒀아 해 해외에 기반을 둔 이들로서는 지나치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서 "입양 2~3세의 국적 취득에 국적법상 특례조항을 뒀야한다"고 제안.

○ 미귀환의 피해구제로서 사할린거주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지원

- 여러 이유로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에 대해 영주귀국자에 상응하는 조치 필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에서도 배제되었던 동포들의 처지를 살펴야함

- 당장 요양원설립이 어려우면 노인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시행.

○ 피해구제 및 기념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실시

- 2015년 활동을 종료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중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피해가 283건 이고 이 중 우선수행과제를 113건으로 정리1) 283건 중 사할린이 명시된 과제는 22건. 내용상 사할린 강제동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과제까지 포함하면 건수는 더 많아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피해 현황 283건 미결과제 중 사할린 관련과제〉

주제	건수	과제
강제동원실태	8	사할린 내지 편입에 따른 동원정책의 적용과 추이 사할린 지역에 동원된 조선인 규모 및 배치 자료: 중소이산가족회 소장 자료를 통한 사할린 강제동원 지역별 동원 규모 : 한반도, 일본, 중국관내, 만주, 대만, 사할린, 태평양, 동남아 직종별 : 사할린 삼림과 제지공장 직종별: 사할린 탄광 노무자 직종별: 사할린 토목 노무자 사할린 협화회와 조선인 강제동원
재해재난집단학살	1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사할린 각지의 조선인 학살 사건 실태
전후처리대북공동사업	7	사할린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송환 경유한 피해자에 관한 공동 실태조사 자료 : 일본 기업 소장 임금 및 보험 기록을 통해 본 사할린 강제동원실태 해방 직후 사할린 지역 한인 인구 이동조사 해방 직후 사할린 지역 한인사회 조사 자료 : 문헌기록을 통해 본 전후 사할린 한인동포 자료: 사할린지역 조선인의 외지 우편자금 관련 기록물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사할린 국내유족 실태조사 사할린 국내유족 실태조사

귀환 미귀환	6	중국, 남양군도, 사할린 등 강제동원 지역별 사망 행불자 현황조사 자료 : 러시아 공문서관 소장 자료를 통해 본 사할린 한인 사망 및 행방불명 실태 자료 : 사망자 등록부 및 주민등록부를 통해 본 사할린 한인 사망 및 행방불명 실태 중국, 남양군도, 사할린 등 강제동원 지역별 및 해상 침몰 후 미인양 유골 분포 현황조사 자료 : 우인정 등 강제동원 관련 명부 중 사망 행불자 실태조사 각 지역별 미귀환 실태(사할린, 만주, 일본 등)
-----------	---	--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2016), 208~231쪽.

밀줄은 우선 수행과제

○ 피해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 일본정부가 추진하다 중단한 "여당 전후50년문제 프로젝트"의 이행 촉구.

'여당 전후50년문제 프로젝트' 사할린 한인관련 주요내용

1. 일본정부는 영주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2. 일본정부는 영주귀국자(독신자, 노부부, 가족)의 거주시설 건설 및 운영비를 부담한다. 3. 일본정부는 영주귀국 후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일본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연금지불 혹은 일시금을 지불한다. 4. 일본정부는 사할린 잔류 선택자들에게 대하여 영주귀국 희망자들과 동등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면, 잔류자들에게는 일시금 지불, <문화교류센터> 건설 등을 고려한다. 5. 일본정부는 사할린-한국간의 상호왕래를 위한 지원을 한다. 6. 일본정부는 사할린에서 소식불명자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망자 유골송환을 실행한다.
--

- 우편자금에 대한 자료제공 촉구.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 유해봉환 : 북위 50도 지역 및 북사할린지역 조사 타당성 검토 필요.

- 북위 50도 근처 지역은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하야시에이다이의 기록에 의하면

접경지역에 조선인들이 상당수 있었음. 이곳은 러시아에서 유해발굴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인 유해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하고 있음. 하지만 한인 유해가 있었는지

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

- 북위 50도 넘어 북사할린지역 공동묘지에서도 한인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

○ 기념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현재 한인문화센터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기념관 및 노인요양시설 건립

- 한인문화센터 리모델링

- 현지 1세들의 사망 등으로 시급한 검토 필요

○ 기록물 수집, 아카이브 사업

-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할린 동포 기록물, 유물 수집이 우선 실시되어야 함.

- 사망 시 사진, 유물을 불태우는 풍습으로 역사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적극적인 수집 및 아카이빙 사업 필요.(재외동포재단 1세 동포 아카이브 사업 시작)

-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

○ 강제동원 현장 보존 사업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현장들이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음. (옛 탄광, 제지공장, 별목장, 건물, 도로 등). 이런 현장에 대해 안내판이 전무한 상태. 안내판

설치(러,한,일,영어), 자세한 설명은 QR코드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연결하여 추가 설명.

- 콘텐츠 생산 관리 등은 한국에서, 현지 입간판 설치, 주정부 협의 등은 한인협회가 진행

※ 한인 학살사건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27인 학살비에 대해서는 도로 입구에 흠스크시에서 안내간판 설치.

- "통한의 비" 추념공간 조성 : 일본 경찰과 헌병이 당시 조선인들 18여 명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후 총살하고 경찰서에 불지른 사건을 알리고자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고 김경순 할머니가 사비로 세운 비석. 현재 위치의 토지관리가 군부대여서 여러차례 지역 한인회에서 추념 공간 조성하고자 했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 이곳에 대한 추념 공간 조성을 합의하고 내년 추념공원으로 조성

○ 역사기행(다크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한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들(강제동원 당사자가 살았던 집 등)을 생활사 자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

작은 규모라도 해외동포들의 문화와 역사 보존 가능.

※ 예) 시네고르스크(옛 카와카미 탄광)시 고 김윤덕(정용 당사자, 2018년 사망)옹의 집

현재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데, 김윤덕 옹의 유품들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 상황. 고 김윤덕 옹의 집(한인 생활사 자료관), 옛 강제동원현장(탄광시설), 시네고르스크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역사기행이 가능.

※ 고 김윤덕 옹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지난 블라디보스톡 동포간담회 당시 김정숙여사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

※ 사할린주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신청사 개관과 함께 국내 저가항공 취항논의 중이었음.(2019년)

사할린, 돼지고기 생산 증가

올해10개월간 사할린주의 농산품 및 제품 생산 총결산에 따르면 육류는 1만1천9백 톤 생산, 65%인 7천8백 톤이 돼지고기에 해당된다. 사할린의 돼지고기 주요 생산업체들은 '메르시 아그로 사할린' 주식회사, '사할린 베이컨 2', '프로드아그로'이며, 육류 품목 총생산량의 95% 이상을 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다.

2020년 결산으로 돼지 사육업체들은 식용 돼지 8천8백 톤을 받아 1만4천8백 톤의 각종 부위별 육류를 공급하여 2019년보다 13% 많은 공급량을 보인 가운데 육류 생산량의 점진적 증가로 사할린주가 극동 지역들 중에서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손챗스키 탄전에서, 1천만 톤 석탄 채굴

사할린주 역사상 처음으로 1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했다.

이 기록적인 수치는 2020년 초부터 동부광업회사가 '손챗스키 탄전'에서 본격적 채굴사업으로 이뤄냈다. 2013년에 손챗스키 탄전은 동부광업회사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채굴량이 5배로 증가해 올해 11월 말에는 1천만 톤을 달성했다.

사할린에서 이 업체는 양질의 석탄 생산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할린의 갈탄 총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ыбыло 15 083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79,8%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5344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625 челове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주, 근로임금 10만 루블리 이상 받는 지역 10순위에 진입

'노보소치'러시아 국영통신사가 제4회 연례 러시아 각 지역의 임금 배당 및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사할린주가 상위 10순위에 올랐다.

분석가들이 조사 대상으로 한 가장 높은 근로임금은 10만 루블리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임금은 1만5천 루블리 이하였다. 올해는 북극 지역과 모스크바에서 10만 루블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북 카프카즈 공화국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근로임금이 1만5천 루블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7.9%의 근로자가 10만 루블리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1위는 추코트카 자치구로 근로자 40% 이상이 최소 월 10만 루블리의 임금을 받고,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0.7%다. 2위는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로 이곳 근로자의 35%가 한 달에 10만 루블리 이상을 받는다. 3위는 모스크바로 고

임금 근로자 비율은 31.6%이고, 4위는 마가단주로 고임금 비율은 27.3%이며 5위는 네네츠크자치구로 고임금 비율이 25.8%이다.

사할린주는 6위로 고임금 비율이 21.9%이고 다음 야쿠치아가 18.9%, 한티만시스크 자치구가 18.4%, 캄차트카가 18.4%, 상트페테르부르크가 13.5%로 10위권에 들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с зарплатами выш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РИА Новости провело четвертое ежегод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уровней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зарплат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казалась в десятке лидеров в составленном рейтинге.

Самая высокая планка, на которую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аналитики, — зарплата в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выше. Самая низкая — от 15 тысяч рублей и ниж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работников с зарплатами боле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больше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е и в Москве.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ников с зарплатой меньше 15 тысяч рублей оказалось в республик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целом по РФ 7,9 процента работающих имеют зарплату от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 Чукотка, где больше 40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ающих зарабатывают как минимум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а доля работников с низкими зарплатами составляет 0,7 процент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здесь 35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ающих получает больш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Москва с долей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работников

31,6 процента,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с долей 27,3 процента, на пятом месте —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с долей 25,8 процен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шестое место с показателем 21,9 процента. Далее по мере убывания следуют Якутия (18,9 процента),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8,4 процента), Камчатка (18,4 процент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3,5 процента).

성악 강습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12월 5일 17 시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성악학교가 수업 발표 겸 콘서트를 개최한다.

관객들은 성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목소리를 더 깊고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량이 풍부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발표회에서 성악학교의 비탈리 쵸렌가르마예브 교장과 학생들이 여러 곡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사할린 일반과학 도서관 홍보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урок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вокала

Школа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вокала 5 декабря проведет отчетный урок-концер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Начало в 17.00.

Зрители узнают, что такое академический вокал, с помощью каких методик можно сделать голос глубже и сильнее, как расширить звуковой диапазон. Также на вечере руководитель школы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вокала Виталий Цыренгармаев и его ученики исполнят несколько композици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